

# 언약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라

창세기 3:1-15, 로마서 5:12-21

최정웅 목사님

우리의 금년 주제가 <언약을 후대에게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언약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교훈은, 언약이 희미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6, 마태복음 22:36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들은 3대의 족장인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었다. 그 언약을 따라 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잘 전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끝까지 지키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언약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 언약이다. 옛날 약속이라 해서 구약(舊約), 새로운 약속이라 해서 신약(新約)이라고 한다. 사람의 약속은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시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언약을 잘 누리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다. 반대로 사단의 소원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언약을 희미하게 알고, 언약을 놓쳐 버리고, 언약을 아예 잊어버리고,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마귀는 지금도 계계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울무와 함정을 놓고 언약을 놓치도록 유혹하고 있다. 이것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다가 승리하는 언약의 사람이 되시기 바란다. 그래서 에베소서 4:27에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한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 1.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언약을 주셨다.

(1)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었는가? 제일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누리라는 것이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창1:27-28).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축복을 받아야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누릴 때,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이 하나님이 창세기 1:27-28에서 처음 인간에게 주셨던 약속이 바로 이 축복의 약속인 것이다.

자꾸 출산을 기피하다 보니까, 앞으로 2030, 204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한다. 금방이다. 나중에는 3천만 명, 2천만 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인은 많아지고 아이가 없어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놓치면 이렇게 된다. 잘 생각해야 한다. 내가 우리 김사모님에게 물어보았다. 둘째를 가지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모양이라서. 그래서, “어때요? 늦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힘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짝 물어봤다. 그러니까 원래 양친한 분이어서 조용히 대답했다. “목사님, 아니에요. 20대 때 아이를 낳아야 돼요.” 언약을 놓치지 마라. 행복하려면 얼마나 행복하려고, 잘 살려면 얼마나 더 잘 살려고 그렇게 언약을 내팽개치는가 싶은데, 그러다보면 결국 인류는 멸망하게 된다.

(2) 이 축복의 언약을 절대 잊지 말고 절대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언약이 선약과인 것이다. 창세기 2:17에 보니까, ‘선약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하시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다. 영어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 왜 선약과를 주셨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안 만들었으면 타락 안 했을 텐데 왜 만들었느냐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 천국 가서 물어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라.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다. 이성과 자유를 주신 것이다, 선택과 책임을 주신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다.

① 그런데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니까 그 구분은 알고 살라는 것이다. 전부 자기 기준으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다. 사실 선과 악의 판단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다. 정의냐 불의냐 하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자기 중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방향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

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러지 않고 전부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 보면 다 맞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너를 창조한 자가 있다.”

②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못 하게 했다. 만약 이게 없으면 딱 하나님께 덤빌 것 아닌가. “너나 나나.”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게 바로 인간이 사는 길이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다.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죽는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는 길을 열어 주셨다. 이게 선약과 언약이다. ‘내가 이성과 자유를 주니까 선택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2. 그런데 인간이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언약이 희미해져 버렸다.

(1) 창세기 3:1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뱀이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큰 용,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라고 밝혀 놓았다. 이게 바로 사탄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다가 영적 세계를 흑암, 혼돈, 공허에 빠뜨리고 인간을 멸망시킨 세력이 바로 사탄의 세력이다. 이것이 나타나서 인간을 속이려고 한 것이다. 여러분, 반역의 마음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 품성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 그것은 진짜 조심해야 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사건, 무슨 일만 생기면 반대할 것부터 생각한다. 의문, 질문에서 발전이 비롯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품성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반역자가 된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나를 성령께 맡겨야 한다.

(2) 문제는 이때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지 않고, 뭘지 모르게 희미해져 버린 것이다. 분명하고 확실하면 이렇게 쉽게 안 넘어졌을 것이 아닌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일단 말을 꼬아서 반대로 묻는다. 여자가 말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 말라는 것을 더했다. 그리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바꾸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의문을 가진 것이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다. 이게 반역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까 울무에 걸리게 되었다. 성경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하지 않나? 그래서 메시지를 그대로 굳게 붙잡아야 한다. 우리 복음메시지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나는 부산은행에 다니던 처녀 이야기를 40번은 들은 것 같다. (웃음) 옛날에 부흥사들은 사건 하나 있으면 엄청 부풀려서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을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있는 그대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야 한다. 이유가 너무 많으니까 말씀을 그대로 안 붙잡는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You will surely die’라는 말을, 이제 사단은 ‘You will not surely die’라고 반대로 뒤집어 버렸다. 원수는 이렇게 한다. 혹시 그런 성품이 있는 분은 오늘 회개하고, 순수하게 말씀을 받고 순수하게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하라. 말을 꼬아서 듣지 않도록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인간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고쳐야 한다.

언약이 희미해지면, 언약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좋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언약인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나를 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만약에 ‘모든 신을 다 섬겨라’ 하고 십계명에 나와 있었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지저분한 인생이 되었겠는가? 인간에게 주신 계명들을 보라. ‘부모를 함부로 대하라’ 했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다행인가? 마음대로 죽여라, 간음해라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해 보면, 십계명은 우리에게 힘든 것이 아니다. 가장 쉽고 가장 좋은 것을 준 것이다. 십계명이 그렇게 좋은 것이다. 만약 엄마가 아이들이 길로 나가면, ‘가지 마라, 길로 나가면 안 된다’ 한다. 아이의 자유를 박탈하고 못되게 해서 그런 것인가? 행여 사고가 나고 다치고 죽을까봐 하는 것이다. 말을 바르게 들어야 한다. 먹지 말라 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붙인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작은 말 하나를 가지고 이 말 저 말을 덧붙여서 싸움을 붙인다. 우리가 그런 말꼬리 잡는 싸움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막고 있는 게

아니다. 규제하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셨구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운 마음으로 곱게 들으라. 내가 한 번 제직수련회를 갔는데, 30명에게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으면 지금보다 좋았을까요, 못했을까요?” 이구동성으로 대답이 나왔다. “지금보다는 낫겠지요. 내가 칭개구리였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제직원으로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들었다. 지금도 메시지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오늘 설교를 가지고 나를 치는구나.’ 그런다. 사실 그런 설교는 성공한 설교 아닌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이라는 말이니까. 그런데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어야 한다.

(3) 이렇게 언약이 희미해진 부분을 두고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하는데,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상상을 해 봤다. 뱀이 뱀을 해 가지고, (웃음) “이 바보야, 멍청아. 이 동산의 모든 열매보다 그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못 먹게 했잖나. 그걸 최고야, 멍청아.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준 것이다.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하지.” “그러면 이거 먹어봐.” (웃음)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죽게 만든 것이다. 같이 먹고, 같이 죽게 되었다. 결국 인간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버리고, 속임수를 쓴 마귀의 종이 되어 버렸다.

(4)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당장 타락으로 인한 부끄러움에 빠져 버리게 되었다.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가리려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금방 부스러지니까 안 되는 것이다.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낫을 피해 보려고 수풀 속에 숨는다. 만물의 영장이었던 인간이 부끄러움에 빠진 인생, 헛된 노력에 빠진 인생,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인생, 남에게 핑계를 대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해산하는 고통, 노동하는 고통, 죽음의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것이다. 이 창세기 3:16-20의 문제를 자세히 풀어서 쓴 것이 12가지 문제다. 인간은 여기에 다 사로잡히게 되어 버렸다.

### 3.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신 것이다.

(1) 창세기 3:14를 보니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영어로는, “You have done this.” 네가 이렇게 했구나 하고 완로형으로 표현했다. ‘그 전에 그런 짓을 하더니 또 그랬구나’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누가 했는지 알고 계셨다. 창세기 1:2에 흑암, 혼돈, 공허로 영적 세계를 어지럽혔던 타락한 천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그래서 원수 마귀를 보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폭로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것을 폭로하라고 밝혀주시고 있다.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원수가 하는 일이다.

(2)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3:15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최초의 약속이었던 것이다. 요즘은 이 사실을 복음으로 설명하는 학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 복음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는 자는 누구든지 사는 것이다.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그를 구원해 내어야 한다. 불 가운데서 건져내야 한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정죄하고 죽이고 밟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다.

(3) 창세기 3:21은 말씀한다.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의 죄와 허물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물을 희생시키셔서 가죽옷을 만드셨고, 그것으로 인간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용서받을 자가 없다. 오직 희생 제물을 통해서만 인간은 의롭게 된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 히브리서 9:22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으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 9:12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다.

(4) 참사랑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모든 저주를 겪으신 제사장인 그리스도이신 것이다.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올라가기 전에 유튜브 영상 하나를 봤는데, 음악을 하는 어느 청년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콘서트장에서 복음을 설명하더라. 대단했다. 그런데 영접을 시키면서도 복음의 핵심은 말하지 않더라. 왜 인간이 망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설명을 안 한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해 보니까, 믿음이 제일 좋다는 아이가 왔는데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하지도 못 알아듣더라고 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누리는데 한 주간을 사시기 바란다.

템즈강 옆에 어떤 거지 할아버지가 있었다. 이 남루한 행색의 할아버지가 바이올린을 켜면서 구걸을 하는 것이다. 서툰 솜씨다. 그런데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았다. 아무도 이 할아버지를 돕는 사람이 없었다. 이 신사가 가서 이야기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으니 미안합니다. 그래도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줄 아는데, 내가 대신 연주를 해 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라고 했다. 이분이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점점 몰려왔다. 몇 곡을 하니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울기 시작했다. 그 할아버지의 모자에 관객들이 넣은 지폐가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그제서야 알아보고 외친 것이다. “파가니니!” 이탈리아가 낳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아닌가. 이 사람이 런던에 왔다가 나왔는데 이 불쌍한 분을 보고 동정이 없으니 연주를 대신 해 준 것이다. 이 거지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버림받은 인생이다. 의지할 데 없는 인생이다. 아무리 연주를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데 한 분이 나타난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다. 다 망가져가는 바이올린이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돈도 없고 기능도 없고 힘도 빠져 있고 직장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이번에 우리가 50주년 행사를 한다. 이때 일꾼을 많이 세우려고 한다. 모두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세우기를 원한다.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을 깨워야 되겠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기를 원한다. 기도하라. 없으면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른다. 이 할아버지는 파가니니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그렇게 연주를 잘 하는지도 몰랐다. 하나님은 파가니니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를 정말 믿고 언약을 정말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우리가 지금 40일 집중을 하고 있다. 중요한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아니, 40일 뿐 아니라 항상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가?

첫째, 자기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흑암을 꺾으시기 바란다. 항상 나 중심이다. 그 마음을 꺾어라. 자기 중심이 되는 순간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된다. 이것을 꺾어야 한다.

둘째,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도, 언약을 서로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란다. 혼자 누리지 말고, 자녀에게도, 부부에게도 전달해야 한다. 우리는 회한하게도 싸우는 것만 보여주고, 뽀뽀하는 것은 숨어서 한다. (웃음) 그러니까 아이들도 보고 배운다. 사람은 만나면 싸워야 하는구나 하고,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붙잡고 선약과를 두고 복음 포럼을 했으면 그렇게 쉽게 언약을 놓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번 주에 실천할 전달의 방향이다. 가정에서 부부에게, 자녀에게, 언약 전달을 서로 해 보게 되기를 바란다. 묵상하면서 누리시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한다.

셋째, 오직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라고, 집중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권세 기도를 하면서 행복을 체험하시기 바란다. 행복을 누리시기 바란다.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현장의 악신이 떠나가고, 응답의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언약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붙잡는 하루,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